

초등학교 아동의 개인위생에 대한 조사

김재삼 · 남철현* · 강희양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계명대학 공중보건학과 교수

A Study on Personal hygiene of Primary School Students

Jae-Sam Kim, Chul-Hyun Nam*, Hae-Yang Kang

Department of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san Univeristy

**Dept. of Public health Kye Myoung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was designed to gain necessary basic data, in order to grasp the actual condition on personal hygiene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to help school health education and child health education data development of parents of students. the survery was carried out through this reporter's interview for mothers who have primary school pupil in KyungBug area during the period of a month from 14 the April to 30 the April 1994.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As for general characteristics, the percent of answer mothers with 30~34 years 44.9%, and the percent of answer mothers with 35~39 years was 37.6%, 14.6% of answer mother was 40 years and over. The most house types was apartment house, that is 64.8% and independence house was 18.9%, 13.7% of answer mothers was multivalent house residents. As for level of school career, the percent of high school was 64.2% and the percent of university was 20.5%, 10.1% of answer mothers was finishment of middle school. As for religion a lack of religion was 38.4% and a Buddhist was 36.8%, a christian was 13.4%, 10.4% of answer mothers was a catholic.

As for jobs, the percent of office was 33.9%, specialist and expert skiller was 17.3%, self-management was 16.0%, fishing and agrarian villiages was 11.6%, public service personnel and shool personnel was 9.1%.

As for the number of sons and daughters, the percent of two was 70.5%, the percent of one was 16.0%, and the percent of male students was 54.1%. As for level of economic life middle level was 59.9%.

2. The percentage of washing hand after school hours was 66.8% and not washing hand after school hours was 33.2%. In washing hand after school hours family of independence house, mothers that have schoolcareer of university, female students, three and over of sons and daughters was high individually ($p < 0.05$).

3. As for paring one's nails, once a ten days was 52.9% once a five days was 22.5% once a fifteen days was 19.0%, once a twenty and over was 5.6%.

4. 54.7% of primary school students of answer mother's take a bath once a few days and 31.6% take a bath once a week, 10.1% take a bath once a tendays.

5. The percentage of changing of underwear once a day was 60.9%, once a few days was 37.1%, once a week was 2.0%, as for changing of underwear, sons and daughters that has mothers with 29 years and downward, one number of sons and daughters, females students was high individually ($p < 0.01$).

6. The percentage of haircut once a 20~30 days was 59.9%, once a 31~40 days was 17.9%, once a 40 days and over was 16.6%. As for the percentage of haircut once a 20~30 days

apartment house residents, male students was high ($p < 0.01$).

7. The percentage of experience in taking nutrition was 79.8% and the percentage of experience in taking restorative was 72.3%.

As for taking nutrition, apartment house residents, one number of sons and daughters, male students was high individually ($p < 0.01$).

As for taking restorative apartment house residents, on number of sons and daughters, male students was high individually ($p < 0.05$).

8. The percentage of habit of unbalanced diet was 44.0%, sons and daughters that have mother with 40 years and over apartment house residents, male students, one number of sons and daughters was high individually ($p < 0.05$).

9. As for hygiene condition of sons and daughters, the percentage of good state of health was 65.2%, middle state of health was 3.5% bad state of health was 11.4%.

In good state of health sons and daughters that have mothers with 29 years and downward, multivalent house residents, three numbers of sons and daughters, female students, high birth was high individually.

10. As for fattness of sons and daughters, existence was 18.2%. No existence was 81.8%. in existence sons and daughters who have mothers with 40 years and downward, independence house resident, special job and expert skill job, three and over number of sons and daughters, female students, low birth was high individually.

11. As for use aspect of medical facilities of sons and daughters, hospital doctors was 53.1%, drugstore was 42.3%, chinese medicine hospitals or health organization was 4.6%. In usage of drugstore, sons and daughters of mothers with 29 years, 40 years and over was 55.6%, 61.4% individually. inusage of hospital doctors 30~34 years, 34~39 years was 64.5%, 49.1% individually ($p < 0.01$), apartment house residents, one or two numbers of sons and daughters, male students was high individually.

In the percentage of using drugstore, school career of middle school and downward, in occupation, three and over numbers of sons and daughters, low birth was high individually ($p < 0.05$).

According to the results mentioned above. An actual condition and a related matters on personal hygiene of primary school students must be used as the basis data of a health education program and a health data of a health education program and a health data related, a teaching materials development and must be helped to the health life education of parents of students and child.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민의 건강 향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든 인류의 건강은 평화와 안전 그리고, 행복을 획득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며 그것은 개인과 지역사회 및 국가가 상호 협조하는데 달려있다(양재모 외). 건강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의 정의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적 및 외적 여러요소,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 및 사회적인 것, 공간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 등 의학 환경 및 사회적인 요인들의 결합에 의한 산물이다.

일정한 개인의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이므로 건강은 첫째 물리적·생물학적·경제적·사회적 환경, 둘째 개인의 생활습관과 형태, 셋째 유

전적인 요소, 넷째 의료제도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양재모: WHO, 1957).

건강확보는 무엇보다 국민의 보건 의식 행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 즉 학교보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남철현, 1991).

학교는 여러방면으로 지역사회의 중심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보건교육과 서어비스는 그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양재모 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변화하는 모든 환경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 나가는 능력은 어린이 성장에 필수적이다(양재모 외).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학교교육에서 이우

어려야 하며 건강을 최적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양을 조절하고 개인 위생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은 개인 건강의 기본이다(남철현, 1993). 그러므로 개인 위생은 자신의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의 행위이다.

국민 각 개인이 건강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건강한 행동을 한다면 그 자신은 물론 그 가정,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보건사업이나 보건정책은 정부가 중요사업 몇 가지에 대하여 목표량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행정적인 업무처리 중심이었기에 또한 질병치료 중심으로 보건의료가 발전되어 왔기에 정부나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보건의료관습에 익숙해져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각 개인의 건강생활 즉 위생적인 습관이나 전통 그리고 환경문제의 개선에는 비교적 소홀해 온 것이 사실이다(남철현: 1982) 뿐만 아니라 국민 각자도 생활습관상 건강에 무관심 하거나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여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조그만한 비위생적인 습관이나 행동이 개인만이 아니고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사회에도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하며 건강생활이 습관화 되어 자신의 건강은 자기 스스로 지킬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건강한 생활습관 즉 개인위생은 어릴때 학교생활에서 습득하여 체질화 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는 현재 국민학교 학생들의 개인위생과 관련생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인건강 생활은 국민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학교 아동들의 개인위생에 대한 실태를 어머니를 통하여 간접파악하여 학교 보건교육 프로그램개발과 학부모에 대한 아동건강교육 자료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구미시, 선산군, 연천시, 경산군, 칠곡군등 5개 시군에 거주하는 국민학교 아동을 가진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 200명씩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국민학교 학생들의 개인위생 생활과 습관을 간접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1994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이었다.

2. 조사방법 및 자료수집

국민학교 자모회, 어머니회, 교회등의 모임에 참석하여 국민학교 학생을 둔 어머니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직접 설명하고 이해시킨 뒤 답을 기재케하여 수거하였다.

3. 조사내용

- 1) 일반특성
- 2) 개인위생(몸의 청결: 손 및 발씻기, 손 및 발톱깎기, 목욕, 이발, 옷 갈아입기 등)
- 3) 영양제 및 보약복용
- 4) 건강상태
- 5) 비만
- 6) 식습관
- 7) 보건의료기관 이용 양상

4. 자료정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여 부실한 자료는 파기하고 총 921매(92.1%)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SPSS/PC package program에 의거 백분율과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X^2 -test로 유의성 검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결과제시는 독립변수와 개인 위생상태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만 표로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분석

1. 일반특성

조사대상자 921명을 특성별로 분석해 보면 어머니 연령은 30~34세에서 44.9%로 가장 높았으며 35~39세에서 37.6%로 다음이었고 40세 이상이 14.6%, 29세 이하는 2.9%였다(표 1).

주거형태 별로는 아파트 거주자가 64.8%, 단독주택이 18.9%, 다가구 주택이 13.7%였다.

표 1. 일반특성

구 분	N	%
계	921	100.0
연령(어머니)		
29세 이하	27	2.9
30~34세	414	44.9
35~39세	348	37.6
40세 이상	132	14.6
주거형태		
단독주택	174	18.9
아파트	597	64.8
다가구주택	126	13.7
기타	24	2.6
학력		
국졸이하	48	5.2
중졸	93	10.1
고졸	591	64.2
대졸이상	189	20.5
종교		
무교	354	38.4
불교	339	36.8
기독교	123	13.4
천주교	96	10.4
기타	9	1.0
직업(가장)		
무직	111	12.1
공무원 및 교직원	84	9.1
사무직	312	33.9
자영업	147	16.0
전문 및 기술직	159	17.3
농어축산업 및 기타	108	11.6
자녀의 수		
1명	147	16.0
2명	648	70.5
3명이상	126	13.5
학생의 성별		
남	498	54.1
여	423	45.9
경제상태		
상	264	28.7
중	552	59.9
하	105	11.4

학력별로 보면 고졸자가 64.2%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이상인 20.5%, 중졸 이상인 10.1%, 국졸 이하는 5.2%였다.

종교별로는 무교가 38.4%로 가장 높았고 불교신자가 36.8%, 기독교 신자가 13.4%, 천주교신사 10.4%였다.

직업별로 보면 사무직이 33.9%로 가장 높았고 전문기술직 17.3%, 자영업 16.0%, 무직 12.1%, 농어축산업 11.6%, 공무원 및 교직원(공교)가 9.1%였다.

자녀의 수는 2명이 70.5%, 1명이 16.0%, 3명 이상이 13.5%였으며 학생의 성별은 남학생 54.1%, 여학생 45.9%로 남자가 높았다.

경제 상대는 중류층이 59.9%로 가장 많았고, 상류층은 28.7%, 하류층이 11.4%였다.

2. 방과 후 손발 씻는 행위

방과 후 손과 발을 씻는 행위 유무를 보면 실천율은 66.8%였고, 씻지 않는다(11.7%)와 잘 씻지 않는다(21.5%)는 33.2%로 약 1/3이 씻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표 2).

이는 1991년 조사(김형남, 1992)의 중·고등학생의 손씻기 실천도에서 보인 꼭 씻는다는 42.1%와 35.1%와 비교하여 높았으며, 1984년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남철현, 1984)에서 나타난 꼭 씻는다는 실천율(농어촌 67.1%, 중소도시 77.3%, 대도시: 81.4%)과 비교하여 보면 본 조사에서의 국민학생의 손씻기 실천율은 약간 낮은 편이었다. 이는 해가 갈수록 개인 청결에 대한 지식·태도·실천·(KAP)수준이 높아가고 있다고 보겠다. 아직 약 1/3이 손을 씻지 않는 만큼 부모와 자녀들에게 이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태도와 실천교육을 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비록 조그마한 일이지만 우리 개인이나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손씻기를 생활화 하여 질병으로부터 우리몸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건강행위의 기초이기 때문이다(남철현, 1984).

연령별로 보면 꼭 씻는다는 29세 이하와 40세 이상의 자녀군에서 각각 88.9%와 75.0%로 타연령군보다 높았다. 씻지 않는다는 35~39세에서 39.1%로 타연령군보다 높았다. 주거형태 별로는 씻는다는 단독주택 거주자에서 71.9%로 가장 높았다. 씻지 않는다는 34.1%로 다가구 주택거주자에서 타군보다 높았다. 어머니 학력별로는 씻는다는 대졸이상에서 74.6%로 가장 높았고, 씻지 않는다는 국졸 이하에서 75.0%로

표 2. 방과 후 손과 발을 씻는 행위유무

구 분	씻는다	씻지 않는다	잘씻지 않는다	계
계	68.8(615)	11.7(108)	21.5(1980)	100.0 (921)
연령(어머니)				
29세 이하	88.9	-	11.1	100.0 (27)
30~34세	66.9	15.4	17.6	100.0 (414)
35~39세	60.9	8.7	30.4	100.0 (348)
40세 이상	70.5	1.4	13.6	100.0 (132)
	$X^2=12.08565$	D.F=6	sig=0.06009	
주거형태				
단독주택	71.9	8.8	19.3	100.0 (174)
아파트	66.7	11.1	22.2	100.0 (397)
다가구주택	65.9	19.5	14.6	100.0 (126)
기타	25.0	12.5	62.5	100.0 (74)
	$X^2=12.16562$	D.F=6	sig=0.05837	
학력				
국족이하	25.0	62.5	12.5	100.0 (354)
중졸	71.0	3.2	25.8	100.0 (339)
고졸	66.5	10.8	22.7	100.0 (123)
대졸이상	74.6	6.3	19.0	100.0 (96)
	$X^2=44.40784$	D.F=6	P<0.001	100.0 (9)

표 3. 손톱과 발톱 깎는기간

구 분	5일	10일	15일	20일 이상	계
계	22.5(207)	52.9(174)	19.0(17.4)	5.6(51)	100.0 (921)
연령(어머니)					
29세 이하	25.0	75.0	-	-	100.0 (27)
30~34세	29.7	50.7	17.4	2.2	100.0 (414)
35~39세	14.7	62.1	17.2	6.0	100.0 (384)
40세 이상	20.5	31.8	31.8	15.9	100.0 (132)
	$X^2=30.38612$	D.F=9	P<0.001		
직업(가장)					
무직	16.2	54.1	18.9	10.8	100.0 (111)
공무원 및 교직원	3.6	53.6	35.7	7.1	100.0 (84)
사무직 자영업	22.1	52.9	21.2	3.8	100.0 (312)
전문 및 기술직	29.2	52.1	10.4	8.3	100.0 (147)
농어축산업 및 기타	28.3	58.5	11.3	1.9	100.0 (159)
	$X^2=21.89997$	D.F=15	sig=0.11045		
자녀의 수					
1명	16.3	61.2	20.4	2.0	100.0 (147)
2명	21.4	54.9	17.2	6.5	100.0 (648)
3명 이상	36.6	34.1	24.4	4.9	100.0 (126)
	$X^2=10.56041$	D.F=3	sig=0.10295		
학생의 성별					
남	15.1	54.2	24.1	6.6	100.0 (498)
여	30.8	52.6	12.0	4.5	100.0 (423)
	$X^2=14.67167$	D.F=3	P<0.001		

월등히 높아 학력이 낮은 어머니는 어린이의 손씻기에 무관심 함을 알 수 있었다(P<0.001).

3. 손톱과 발톱을 깎는 기간

손발톱을 며칠만에 깎는지를 조사한 것을 보면 10일에 한번이 가장 높았으며 5일에 깎는다가 22.5%였으며 15일 만에는 19.0%였고 20일 이상이 5.6%였다(표 3).

손발톱의 관리도 개인위생에서 중요하다. 미관상 뿐 아니라 손톱안에 균이 번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남철현, 1982).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에서는 10일 이내가 75.0%로 가장 높았다. 5일 이내는 30~34세에서 29.7%로 타연령군보다 높았다. 40세 이상에서는 15일 이상과 20일 이상에서 각각 31.8%와 15.9%로 타연령군보다 높았다(P<0.001). 직업별로는 10일만에 깎는율은 전문기술직에서 58.8%로 타직종보다 높았고, 공무원 및 교직원에서는 15일에 깎는다가 35.7%로 타직종보다 현저히 높았다.

자녀의 수별로 보면 5일내 깎는 율 3명이상에서 36.6%로 타군보다 높았고, 10일은 1명에서 61.2%로 타군보다 높았다.

학생의 성별로 보면 5일만에 깎는다는 여학생에서 30.8%로 높았고 10일, 15일, 20일 만에는 남자에서 각각 54.2%, 24.1%, 6.6%로서 여자보다 높았다(P<0.01).

4. 목욕회수

목욕회수는 2~3일에 한번이 54.7%로 가장 높았고, 주 1회가 31.6%로 다음이며 10일만에 1회는 10.1%였고, 2주 1회는 3.6%였다(표 4).

이는 1991년 조사에서 보인 중학생의 목욕회수 1주일에 1회 60.9%, 2주 1회 21.8%와 비교하면 목욕회수가 높아졌다.

국민학생과 중학생은 단순비교할 수는 없으나 3년이 지난 현재의 환경과 보건 의식이 약간 좋아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거형태별로 보면 2~3일에 1회는 아파트 거주자에서 58.8%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목욕시설 여건이 아파트가 더큰 주택보다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어머니 학력별로 보면 국졸 이하에서는 주 1회가 37.5%로 높았고, 2주 1회가 25.0%였다. 중·고·대졸에서는 2~3일에 1회가 각각 45.2%, 58.9%, 52.4%

표 4. 목욕회수

구 분	2~3일 1회	주 1회	10일 1회	1주 1회	계
계	54.7(504)	31.6(291)	10.1(93)	3.6(33)	100.0(921)
연령(어머니)					
29세 이하	77.8	-	22.2	-	100.0 (27)
30~34세	59.4	31.9	8.0	0.7	100.0 (414)
35~39세	54.3	32.8	10.3	2.6	100.0 (348)
40세 이상	36.4	34.1	13.6	15.9	100.0 (132)
	X ² =32.05711		D.F=9	P<0.001	
주거형태					
단독주택	50.0	39.7	8.6	1.7	100.0 (174)
아파트	58.8	27.1	11.1	3.0	100.0 (597)
다가구주택	45.2	35.7	9.5	9.5	100.0 (126)
기타	37.5	62.5	-	-	100.0 (24)
	X ² =13.34173		D.F=9	sig=0.14774	
학력					
국졸이하	31.3	37.5	6.3	25.0	100.0 (48)
중졸	45.2	41.9	6.5	6.5	100.0 (93)
고졸	58.9	29.4	9.6	2.0	100.0 (591)
대졸 이상	52.4	31.7	14.3	1.6	100.0 (189)
	X ² =29.32736		D.F=9	P<0.001	

표 5. 속옷 갈아입는 회수

구 분	1회/1일	1회/2~3일	1회/4~7일	계
계	60.9(561)	37.1(342)	2.0(18)	100.0(921)
연령(어머니)				
29세 이하	88.9	11.1	-	100.0 (27)
30~34세	65.9	31.9	2.2	100.0 (414)
35~39세	58.6	39.7	1.7	100.0 (348)
40세 이상	45.5	52.3	2.3	100.0 (132)
	$X^2=9.39956$	D.F=6	sig=0.15232	
주거형태				
단독주택	58.6	36.2	5.2	100.0 (174)
아파트	63.3	25.7	1.0	100.0 (597)
다가구주택	50.0	47.6	2.4	100.0 (126)
기타	75.0	25.0	-	100.0 (24)
	$X^2=7.19457$	D.F=6	sig=0.30323	
학력				
국졸이하	50.0	31.3	18.8	100.0 (48)
중졸	41.9	58.1	-	100.0 (93)
고졸	62.9	36.0	1.0	100.0 (591)
대졸이상	66.7	31.7	1.6	100.0 (189)
	$X^2=31.61626$	D.F=6	P<0.001	
종교				
무교	58.5	40.7	0.8	100.0 (354)
불교	61.1	36.3	2.7	100.0 (339)
기독교	68.3	31.7	-	100.0 (123)
천주교	62.5	34.4	3.1	100.0 (96)
기타	33.3	33.3	33.3	100.0 (9)
	$X^2=18.85693$	D.F=8	P<0.05	
자녀의 수				
1명	69.4	24.5	6.1	100.0 (147)
2명	58.8	39.8	1.4	100.0 (648)
3명이상	61.0	39.0	-	100.0 (126)
	$X^2=8.78732$	D.F=4	sig=0.06664	
학생의 성별				
남	57.8	40.4	1.8	100.0 (498)
여	63.4	35.1	1.5	100.0 (423)
	$X^2=0.97504$	D.F=2	sig=0.61415	
경제상태				
상	63.6	36.4	-	100.0 (264)
중	61.4	37.5	1.1	100.0 (552)
하	50.0	38.2	11.8	100.0 (105)
	$X^2=19.91946$	D.F=4	P<0.001	

로 가장 높았다(P<0.001).

5. 속옷 갈아입는 회수

속옷 갈아입는 회수는 1일 1회가 60.9%로 가장 높았고, 2~3일에 1회가 37.1%, 4~7일 1회는 2.0%였다(표 5). 이는 1991년 중학교 조사에서 나타난 1주일에

1회 26.0%, 2주일에 1회 57.6%와 비교하면 본 조사에서는 속옷 갈아입는 회수가 월등히 높았다. 이 역시 과거보다 부모들의 보건의식 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아져 위생적으로는 대단히 향상된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어머니의 자녀에서 1일 1회는 88.9%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져 40세 이상에서는 45.5%였다. 2~3일 1회는 40세 이상에서 52.3%로 가장 높았다.

학력별로는 1일 1회는 대졸, 고졸, 국졸이하에서는 각각 66.7%, 62.9%, 50.0%로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다(P<0.001)

종교별로는 1일 1회는 기독교신자에서 68.3%로 가장 높았고, 천주교, 불교, 무교에서도 각각 62.5%, 61.1%, 58.5%로 높았다(P<0/05).

자녀의 수별로 보면 1일 1회는 1명이 69.4%, 3명 이상은 61.0%였으며 성별로는 1일 1회 여자에서 63.4%로 남자보다 높았고 2~3일에 1회는 남학생에

서 40.4%로 여학생보다 높았다.

경제상태 별로는 1일 1회는 경제 상태가 상류층 일수록 높았다(상=63.6%, 중=61.4%, 하=50.0%) (P<0.001).

6. 이발회수

이발회수는 20~30일에 1회가 59.9%로 가장 높았고 31~40일에 1회는 17.9%, 40일이상 1회는 16.6%였다(표 6). 연령별로는 29세이하 자녀에서는 31~40일에 1회가 44.4%로 가장 높았고 30~34세 군에서 60.2%, 35~39세 군에서 63.5%, 40세 이상에서는 50.0%였다.

주거형태 별로는 아파트 거주자에서 20~30일에 1회가 62.6%로 가장 높았다. 학력별로는 보면 20~30일에 1회는 어머니가 대졸 이상에서 64.5%로 타학군력보다 높았고 15일에 1회 이발하는 경우는 국졸이하에서 13.3%로서 타학군력보다 높았다.

표 6. 이발회수

구 분	1회/15일	1회/0~30일	1회/31~40일	1회/40일이상	계
계	5.6(51)	59.9(552)	17.9	16.6(153)	100.0(921)
연령(어머니)					
29세 이하	-	33.3	44.4	22.2	100.0 (27)
30~34세	6.8	60.2	12.0	21.1	100.0 (414)
35~39세	4.3	63.5	19.1	13.0	100.0 (348)
40세 이상	6.8	50.0	29.5	13.6	100.0 (132)
	X ² =15.38449		D F=9	sig=0.08090	
주거형태					
단독주택	8.6	56.9	15.5	15.4	100.0 (174)
아파트	5.1	62.6	16.9	22.5	100.0 (597)
다가구주택	5.0	45.0	27.5	12.5	100.0 (126)
기타	-	62.5	25.0		100.0 (24)
	X ² 7.02515		D F=9	sig=0.63450	
학력					
국졸이하	13.3	53.3	26.7	19.4	100.0 (48)
중졸	9.7	41.9	29.0	18.1	100.0 (93)
고졸	4.7	60.6	16.6	14.5	100.0 (591)
대졸이상	4.8	64.5	16.1		100.0 (189)
	X ² =9.29454		D F=9	sig=0.41054	
학생의 성별					
남	9.1	7.9	17.0	6.1	100.0 (498)
여	1.5	47.3	20.6	30.5	100.0 (423)
	X ² =38.93548		D F=3	P<0.01	

표 7. 자녀의 영양제 및 보약복용 경험유무

구 분 계	영양제		보약		계 100.0 (921)
	없다 20.2(186)	있다 79.8(735)	없다 27.7(255)	있다 72.(666)	
연령					
29세 이하	22.2	77.8	66.7	33.3	100.0 (27)
30~34세	19.6	80.4	23.9	76.1	100.0 (414)
35~39세	17.2	82.8	24.1	75.9	100.0 (348)
40세 이상	29.5	70.5	40.9	59.1	100.0 (132)
	$X^2= 3.07172$	D.F=3 sig=0.38070	$X^2=12.38353$	D.F=3 P<0.01	
주거형태					
단독주택	24.1	75.9	36.2	63.8	100.0 (174)
아파트	17.6	82.4	23.6	76.4	100.0 (597)
다가구주택	28.6	71.4	38.1	61.9	100.0 (126)
기타	12.5	87.5	12.5	87.5	100.0 (24)
	$X^2= 3.52108$	D.F=3 sig=0.31804	$X^2=6.94249$	D.F=3 sig=0.07375	
학력					
국졸이하	25.0	75.0	31.3	68.8	100.0 (48)
중졸	29.0	71.0	32.3	67.7	100.0 (93)
고졸	17.8	82.2	26.4	73.6	100.0 (591)
내졸이상	22.2	77.8	28.6	71.4	100.0 (189)
	$X^2= 2.61289$	D.F=3 sig=0.45523	$X^2=0.61359$	D.F=3 sig=0.89331	
종교					
무교	26.3	73.7	32.2	67.8	100.0 (354)
불교	15.0	85.0	20.4	79.6	100.0 (339)
기독교	17.1	82.9	39.0	61.0	100.0 (123)
천주교	21.9	78.1	21.9	78.1	100.0 (96)
기타	-	100.0	33.3	66.7	100.0 (9)
	$X^2= 5.62633$	D.F=4 sig=0.22885	$X^27.45695$	D.F=4 sig=0.11362	
직업					
무직	29.7	70.3	37.8	62.2	100.0 (111)
공무원 및 교직원	17.9	82.1	28.6	71.4	100.0 (84)
사무직	20.2	79.8	26.9	73.1	100.0 (312)
자영업	26.5	73.5	22.4	77.6	100.0 (147)
전문 및 기술직	11.3	88.7	34.0	66.0	100.0 (159)
농어·산업 및 기타	19.4	80.6	19.4	80.6	100.0 (108)
	$X^2= 5.91202$	D.F=5 sig=0.31487	$X^24.65547$	D.F=5 sig=0.45936	
자녀의 수					
1명	16.3	83.7	25.0	75.0	100.0 (147)
2명	17.1	82.9	26.5	73.5	100.0 (648)
3명 이상	39.0	61.0	43.9	56.1	100.0 (126)
	$X^2=10.82567$	D.F=2 P<0.001	$X^26.18246$	D.F=2 P<0.05	
학생의 성별					
남	18.1	81.9	22.3	77.7	100.0 (498)
여	22.4	77.6	33.6	66.4	100.0 (423)
	$X^2= 0.86315$	D.F=1 sig=0.35286	$X^24.76077$	D.F=1 P<0.05	
경제상태					
상	21.6	78.4	23.9	76.1	100.0 (264)
중	19.6	80.4	28.8	71.2	100.0 (552)
하	20.6	79.4	32.4	67.6	100.0 (105)
	$X^2=0.15372$	D.F=2 sig=0.92602	$X^2=1.12343$	D.F=2 sig=0.57023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15일에 1회와 20~30일에 1회가 각각 9.9%와 67.9%로 여학생의 1.5%와 47.3%보다 현저히 높았고 31~40일 이상은 여자에서 20.6%와 30.5%로 남자보다 높았다($P < 0.01$).

7. 자녀의 영양제 및 보약복용 경험유무

자녀에게 영양제를 복용시킨 경험이 있는 경우는 79.8%로서 어머니들이 자녀의 건강을 위하여 신경을 크게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7). 연령별로 보면 35~39세에서 82.8%로 복용시킨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자녀에게 영양제를 복용시킨 경험은 아파트 거주자에서 82.4%, 고졸자에서 82.2%, 불교신자에서 85.0%, 전문 및 기술직 가장의 자녀에서 88.7%, 남자에서 81.9%, 중류층에서 80.4%였다.

자녀의 수 별로는 1명에서 83.7%, 2명에서 82.9%, 3명 이상에서는 61.0%의 순으로 자녀가 적을수록 자녀의 영양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어 1명에서의 영양제 복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P < 0.01$). 한편 보약을 복용시킨 경험은 있다가 72.3%로서 영양제보다는 약간 낮은 율을 보였다(표 7).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에서는 없다가 66.7%로 높았으며 30대 이상군에서는 59.1%~76.1%로서 있다가 높았다($P < 0.01$).

보약 복용시킨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아파트 거주자에서 76.4%, 고졸자에서 73.6%, 불교신자에서 79.6%, 농어축산업에서 80.6%, 상류층에서 76.1%로서 높았다.

자녀의 수에서는 1명에서 있다가 75.0%로 가장 높고 3명 이상에서는 56.1%였다($P < 0.05$). 보약복용 경험율은 남학생에서 77.7%로 여학생의 66.4%보다 높았다($P < 0.05$). 이는 남아 선호 사상과 자녀의 수에 따른 경제 상태, 회귀가치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8. 식습관

식습관에서 편식여부를 보면 편식한다가 44.0%로 1991년도 중학생의 조사(김형남, 1992)에서 보인 편식을 30.0%와 비교하면 식습관이 좋아진 편이라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아동들의 편식을 44.0%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균형식

표 8. 식습관(편식여부)

구 분	잘먹는다	편식한다	계
계	56.0(516)	44.0(405)	100.0(921)
연령			
29세 이하	55.5	44.4	100.0(27)
30~34세	55.8	44.2	100.0(414)
35~39세	56.9	43.1	100.0(348)
40세 이상	54.5	45.5	100.0(132)
	$X^2 = 0.07857$ D.F = 3 sig = 0.99428		
주거형태			
단독주택	55.2	44.8	100.0(174)
아파트	54.8	45.2	100.0(597)
다가구주택	69.0	31.0	100.0(126)
기타	25.0	75.0	100.0(24)
	$X^2 = 6.16019$ D.F = 3 sig = 0.10407		
학력			
국졸이하	56.3	43.8	100.0(48)
중졸	61.3	38.7	100.0(93)
고졸	55.3	44.7	100.0(591)
대졸이상	55.6	44.4	100.0(189)
	$X^2 = 0.39343$ D.F = 3 sig = 0.94160		
종교			
무교	56.8	43.2	100.0(354)
불교	53.1	46.9	100.0(339)
기독교	61.0	39.0	100.0(123)
천주교	56.3	43.8	100.0(96)
기타	66.7	33.3	100.0(9)
	$X^2 = 0.96682$ D.F = 4 sig = 0.91478		
직업			
무직	56.8	43.2	100.0(111)
공무원 및 교직원	57.1	42.9	100.0(84)
사무직	51.0	49.0	100.0(312)
자영업	63.3	36.7	100.0(147)
전문 및 기술직	66.0	34.0	100.0(159)
농어축산업 및 기타	45.2	54.8	100.0(108)
	$X^2 = 5.78788$ D.F = 5 sig = 0.32741		
자녀의 수			
1명	49.0	51.0	100.0(147)
2명	54.2	45.8	100.0(648)
3명 이상	75.6	24.4	100.0(126)
	$X^2 = 7.67593$ D.F = 2 P < 0.05		
학생의 성별			
남	54.2	45.8	100.0(498)
여	58.2	41.8	100.0(423)
	$X^2 = 0.47957$ D.F = 1 sig = 0.48862		
경제상태			
상	60.2	39.8	100.0(264)
중	52.7	47.3	100.0(552)
하	64.7	35.3	100.0(105)
	$X^2 = 2.48585$ D.F = 2 sig = 0.28854		

표 9. 건강상태

구 분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	약한편이다	아주약하다	계
계	12.4 (114)	52.8 (486)	23.5(216)	10.4(96)	1.0(9)	100.0 (921)
연령(어머니)						
29세 이하	-	77.8	11.1	11.1	-	100.0 (27)
30~34세	13.8	45.7	25.4	14.5	0.7	100.0 (414)
35~39세	9.5	61.2	21.6	6.9	0.9	100.0 (348)
40세 이상	18.2	47.7	25.0	6.8	2.3	100.0 (132)
	X ² 13.58213		D.F=12	sig=0.32816		
주거형태						
단독주택	6.9	58.6	29.3	5.2	-	100.0 (174)
아파트	14.1	49.7	23.1	12.1	1.0	100.0 (597)
다가구주택	11.9	61.9	14.3	9.5	2.4	100.0 (126)
기타	12.5	37.5	37.5	12.5	-	100.0 (24)
	X ² 10.25536		D.F=12	sig=0.59357		
학력						
국졸이하	6.3	37.5	31.3	25.0	-	100.0 (48)
중졸	16.1	51.3	19.7	12.9	-	100.0 (93)
고졸	9.6	52.3	26.4	10.2	1.5	100.0 (591)
대졸이상	20.6	54.0	19.0	6.3	-	100.0 (189)
	X ² =16.96493		D.F=12	sig=0.15092		
종교						
무교	16.1	51.7	23.7	7.6	0.8	100.0 (354)
불교	10.6	52.2	26.5	10.6	-	100.0 (339)
기독교	9.8	51.2	24.4	9.8	4.9	100.0 (123)
천주교	9.4	59.4	12.5	18.8	-	100.0 (96)
기타	-	66.7	-	33.3	-	100.0 (9)
	X ² =18.08027		D.F=16	sig=0.31922		
직업(가장)						
무직	16.2	43.2	32.4	8.1	-	100.0 (111)
공무원 및 교직원	10.7	46.4	25.0	14.3	3.6	100.0 (84)
사무직	16.3	52.9	21.2	8.7	1.0	100.0 (312)
자영업	12.2	53.1	24.5	10.2	-	100.0 (147)
전문 및 기술직	5.7	58.5	24.5	11.3	-	100.0 (159)
농어축산업 및 기타	9.7	51.6	19.4	16.1	3.2	100.0 (108)
	X ² 13.47969		D.F=20	sig=0.85587		
자녀의 수						
1명	12.2	55.1	20.4	12.2	-	100.0 (147)
2명	12.0	51.9	24.5	10.6	0.9	100.0 (648)
3명이상	12.2	56.1	22.0	7.3	2.4	100.0 (126)
	X ² =12.57816		D.F=4	P<0.005		
경제상태						
상	20.5	56.8	11.4	11.4	-	100.0 (264)
중	8.2	50.5	30.4	10.3	0.5	100.0 (552)
하	14.7	55.9	14.7	8.8	5.9	100.0 (105)
	X ² =28.15642		D.F=8	P<0.001		

에 대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학생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해야겠다(표 8).

특성별로 보면 편식은 40세 이상 어머니 자녀에서 45.5%, 아파트 거주자에서 45.2%, 고졸자에서 44.7%, 불교신자에서 46.9%, 농어축산업에서 54.8%, 남학생에서 45.8%, 중류층에서 47.3%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

자녀의 수는 1명에서 51.0%로 가장 높았고 3명 이상에서는 24.4%로 낮아서 형제가 많을수록 편식율이 낮았다($P < 0.05$)

9. 건강상태

자녀의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건강한편 52.8%, 아주건강 12.4%)는 65.2%였으며 보통이다가 23.5%였고 약하다가 11.4%였다(표 9).

특성별로 보면 건강하다는 어머니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77.8%, 다가구 주택에서 73.8%, 대학학력 이상 가정의 자녀에서 74.6%, 천주교신자에서 68.8%, 사무직 가정의 자녀에서 69.2%, 자녀의 수 3명 이상에서 68.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에서 건강하다가 70.8%로서 남자의 60.3%보다 상당히 높았고 ($P < 0.05$), 경제상태 별로는 상류층에서 건강하다가 77.3%, 약하다는 30세~34세에서 15.2%, 아파트에서 13.1%, 국졸 이하에서 25.0%, 농어축산업에서 19.3%, 자녀수 1명에서 12.2%, 여자에서 12.7%, 상류층에서 11.4%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

10. 자녀의 비만유무

어머니가 판단하는 자녀의 비만유무를 보면 있다가 18.2%, 없다가 81.8%였다(표 10). 특성별로 보면 비만이 있다는 40세 이상 어머니 자녀에서 27.3%, 단독주택에서 20.7%, 국졸 이하에서 25.0%, 기독교 신자에서 22.0%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

11. 보건의료기관 이용양상

어린이가 아플때 보건의료기관 이용양상을 보면 병의원 이용이 53.1%로 가장 높고 약국이용이 42.3%이며 한의원 또는 보건소가 4.6%였다(표 11). 이는 1993년도 전국의료 이용양상 조사에서 나타난 병의원 이용 48.5%, 약국이용 40.1%, 한방 및 보건소 4.7%

표 10. 자녀의 비만유무

구 분	있다	없다	계
계	18.2(168)	81.8 (753)	100.0(921)
연령			
29세 이하	22.2	77.8	100.0(27)
30~ 34세	16.7	83.3	100.0(414)
35~39세	16.4	83.6	100.0(348)
40세 이상	27.3	72.7	100.0(132)
	$X^2 = 3.00121$ D.F = 3 sig = 0.39144		
주거형태			
단독주택	20.7	79.3	100.0(174)
아파트	17.6	82.4	100.0(597)
다가구주택	16.7	75.0	100.0(126)
기타	25.0	75.0	100.0(24)
	$X^2 = 0.60495$ D.F = 3 sig = 0.89530		
학력			
국졸이하	25.0	75.0	100.0(48)
중졸	12.9	87.1	100.0(93)
고졸	18.8	81.2	100.0(591)
대졸이상	17.5	82.5	100.0(189)
	$X^2 = 1.14612$ D.F = 3 sig = 0.76581		
종교			
무교	17.8	82.2	100.0(354)
불교	18.6	81.4	100.0(339)
기독교	22.0	78.0	100.0(123)
천주교	15.6	84.4	100.0(96)
기타	-	100.0	100.0(9)
	$X^2 = 1.21914$ D.F = 4 sig = 0.87494		
직업			
무직	16.2	83.8	100.0(111)
공무원 및 교직원	14.3	85.7	100.0(84)
사무직	15.4	84.6	100.0(312)
자영업	20.4	79.6	100.0(147)
전문 및 기술직	26.4	73.6	100.0(159)
농어축산업 및 기타	12.9	87.1	100.0(108)
	$X^2 = 4.12277$ D.F = 5 sig = 0.53188		
자녀의 수			
1명	16.3	83.7	100.0(147)
2명	18.5	81.5	100.0(648)
3명 이상	19.5	80.5	100.0(126)
	$X^2 = 0.17483$ D.F = 2 sig = 0.91630		
학생의 성별			
남	15.7	84.3	100.0(498)
여	22.4	77.6	100.0(423)
	$X^2 = 2.20899$ D.F = 1 sig = 0.13721		
경제상태			
상	19.3	80.7	100.0(264)
중	16.8	83.2	100.0(552)
하	23.5	76.5	100.0(105)
	$X^2 = 0.94241$ D.F = 2 sig = 0.62425		

표 11. 보건의료기관이용양상(자녀가 아플때)

구분	약국	병의원	한의원 및 보건소	계
계	42.3(390)	53.1	4.6(42)	100.0(921)
연령				
29세 이하	55.6	44.4		100.0(27)
30~34세	34.1	64.5	1.4	100.0(414)
35~39세	44.0	49.1	6.9	100.0(348)
40세 이상	61.4	29.5	9.1	100.0(132)
	$X^2=21.58885$	D.F=6	P<0.01	
주거형태				
단독주택	46.6	46.6	6.9	100.0(174)
아파트	37.2	59.3	3.5	100.0(597)
다가구주택	61.9	31.0	7.1	100.0(126)
기타	37.5	62.5	-	100.0(24)
	$X^2=13.40079$	D.F=6	P<0.05	
학력				
국졸이하	56.3	37.5	6.3	100.0(48)
중졸	54.8	41.9	3.2	100.0(93)
고졸	41.1	53.3	5.6	100.0(591)
대졸이상	36.5	61.9	1.6	100.0(189)
	$X^2=6.72764$	D.F=6	sig=0.34677	
종교				
무교	40.7	55.9	3.4	100.0(354)
불교	41.6	54.0	4.4	100.0(339)
기독교	58.5	39.0	2.4	100.0(123)
천주교	34.4	56.3	9.4	100.0(96)
기타	-	66.7	33.3	100.0(9)
	$X^2=14.10644$	D.F=8	sig=0.07903	
직업				
무직	48.6	45.9	5.4	100.0(111)
공무원 및 교직원	42.9	57.1	-	100.0(84)
사무직	42.3	53.8	3.8	100.0(312)
자영업	49.1	49.0	1.9	100.0(147)
전문 및 기술직	34.0	56.6	9.4	100.0(159)
농어축산업 및 기타	35.5	58.1	6.5	100.0(108)
	$X^2=8.01119$	D.F=10	sig=0.62774	
자녀의 수				
1명	38.8	55.1	6.1	100.0(147)
2명	40.3	55.6	4.2	100.0(648)
3명 이상	56.1	39.0	4.9	100.0(126)
	$X^2=4.35201$	D.F=4	sig=0.36045	
학생의 성별				
남	41.0	54.2	4.8	100.0(498)
여	44.8	50.7	4.5	100.0(423)
	$X^2=0.44069$	D.F=2	sig=0.80224	
경제상태				
상	42.0	54.5	3.4	100.0(264)
중	41.8	54.9	3.3	100.0(552)
하	47.1	38.2	14.7	100.0(105)
	$X^2=10.33607$	D.F=4	P<0.05	

와 비교하면 본 조사에서 병의원 이용율이 높았는데 이는 어린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별로 보면 약국 이용은 29세 이하와 40세 이상의 어머니 자녀에서 각각 55.5%와 61.4%로 타연령군보다 높았고 병의원 이용은 30~34세와 35~39세군에서 각각 64.5%와 49.1%로 타연령군보다 높았다($P<0.01$).

단독주택 거주자는 약국과 병의원 이용율이 각각 46.6%로 같았으며 아파트 거주자에서 병의원 이용율이 59.3%로 다가구 주택 거주자에서 약국이용율이 61.9%로 높았다($P<0.05$).

약국 이용율은 국졸과 중졸에서 56.3%와 54.8%로 병의원 이용율은 고졸과 대졸에서 53.3%와 61.9%로 높았고 무직과 자영업은 약국이용율이 높았고 타직종은 병의원 이용율이 높았다. 자녀수가 1명과 2명은 병의원 이용율이 3명 이상에서는 약국 이용율이 높았고 남학생에서는 병의원 이용율이 높았다.

경제상태 별로는 중상류층은 병의원 이용율이 54.9%와 54.5%로 하류층에서는 47.1%로 약국이용율이 높았다($P<0.05$).

IV. 요약 및 결론

국민학교 아동들의 개인위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학교보건교육 프로그램 및 학부모의 아동건강교육 자료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1994년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경북도내 5개 시군에 거주하는 국민학교 아동을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요약과 결론을 얻었다.

1. 일반특성에서 응답 어머니의 연령은 30~34세가 44.9%, 35~39세가 37.6%, 40세 이상이 14.6%였다. 아파트 거주자가 64.8%, 단독주택이 18.9%, 다가구 주택이 13.7%였다. 학력은 고졸자가 64.2%, 대학력자가 20.5%, 중졸자가 10.1%였으며 종교는 무교가 38.4%, 불교신자가 36.8%, 기독교 신자가 13.4%, 천주교 신자가 10.4%였다.

직업별로 보면 사무직이 33.9%, 전문기술직이 17.3%, 자영업이 16.0%, 농어축산업 11.6%, 공무원 및 교직원 9.1%였다.

자녀수는 2명이 70.5%, 1명이 16.0%였고 남학생

이 54.1%였으며 경제상태는 중류층이 59.9%였다.

2. 방과 후 손발을 씻는 행위는 씻는다가 66.8%였고 잘씻지 않는 경우가 33.2%였다. 손발을 꼭 씻는다는 단독주택 거주자에서, 어머니 학력이 대학 학력자에서, 전문기술직 가정의 자녀에서, 여학생에서, 자녀수가 3명 이상 가정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P<0.05$).

3. 손발톱은 10일에 한번 깎는다가 52.9%였고 5일만에 깎는다가 22.5%였으며 15일만에는 19.0%, 20일 이상은 5.6%였다

4. 목욕회수는 2~3일에 한번이 54.7%였고 주 1회가 31.6%였으며 10일만에는 10.1%, 2주 1회는 3.6%였다. 2~3일에 1회는 29세 이하 어머니 자녀에서, 아파트 거주자에서, 고졸자가 부모인 자녀에서, 농어축산업 자녀에서, 여학생에서 그리고, 중류층에서 타군보다 높았다($P<0.01$).

5. 속옷 갈아입는 회수는 1일 1회가 60.9%로 가장 높았고 2~3일에 1회가 37.1%, 4~7일에 1회는 2.0%였다. 1일 1회 속옷을 갈아입는 경우는 29세 이하 어머니의 자녀에서,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농어축산업에, 자녀수 1명에서, 여학생에서, 상류층일수록 높았다($P<0.001$).

6. 이발회수는 20~30일에 1회가 59.9%, 31~40일이 17.9%, 40일 이상도 16.6%였다.

20~30일에 1회는 아파트 거주자에서, 대학 학력자에서, 남학생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P<0.001$).

7. 자녀에게 영양제를 복용시킨 경험이 79.8%, 보약을 복용시킨 경험은 72.3%였다. 영양제 복용은 아파트 거주자에서, 고졸자에서, 전문기술직 가정의 자녀에서, 자녀수 1명에서, 남자에서, 중류층에서 높았다($P<0.01$).

보약복용은 아파트 거주자에서, 고졸자에서, 농어축산업 가정에서, 자녀수 1명에서, 남학생에서, 상류층에서 높았다($P<0.05$).

8. 식습관에서 아동들이 편식한다가 44.0%였다. 40세이상 어머니 자녀에서, 아파트 거주자에서, 고졸 가정의 자녀에서, 농어축산업에서, 남학생에서, 중류층에서, 자녀수 1명 가정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P<0.05$).

9. 자녀의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65.2%였으며 보통이다는 23.5%였고 약하다는 11.4%였다.

건강하다는 어머니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다가구 주택에서, 대학 학력자에서, 사무직 가정의 자녀에서, 자녀수 3명이상 가정의 자녀에서, 여자에서, 상류층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

10. 자녀의 비만은 있다가 18.2%, 없다가 81.8%였다. 비만이 있다는 40세이상 어머니의 자녀에서, 단독 주택 거주자에서, 전문 및 기술직에서, 3명이상 자녀에서, 여자에서, 하류층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

11. 자녀의 보건의료기관 이용양상은 병의원 이용이 73.1%로 가장 높고 약국이용이 42.3%이며 한의원 또는 보건소가 4.6%였다. 약국이용은 29세와 40세이상 어머니 자녀에서 각각 55.6%와 61.4%로 타군보다 높았고 병의원 이용은 30~34세와 34~39세 군에서 각각 64.5%와 49.1%로 타군보다 높았다($P<0.01$).

병의원 이용은 아파트거주자에서, 자녀수 1~2명에서, 대졸이상에서, 남학생에서, 중상류 층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고 약국이용율은 국졸이하에서, 무직과 자영업에서, 자녀수 3명이상에서, 하류층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p<0.05$).

이상에서와 같이 국민학교 아동들의 개인위생실태 및 관련사항이 보건교육 프로그램과 보건관련 자료 및 교재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학부모와 아동들의 건강생활교육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양재모, 유승훈: 국민의료총론, 수문사, PP.16-44.
2. WHO Technical Study Group, Measurement of Levels of Health, WHO Tech Rep Ser No, 137, 1957.
3. 남철현 : 학교보건교육, 한국학교보건학회지, 4/2, pp. 39-43, 1991.
4. 김주성 : 학교보건개론, 현실출판사, p 11, 1975
5. 이수희, 학교보건교육, 교우출판사, p.313, 1986.
6. 남철현, 정기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분석, 한국인구보건연구원, pp.23-28, 1985.
7. 남철현, 보건학원론, 계축사, 1993.
8. 남철현, 이시백, 전병훈, 최상섭: 바른건강생활, 보건사회부, pp.6-19, 1982.
9. 김형남, 남철현: 영남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보건의식행태조사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4/2, 1992.
10. 남철현, 서미경, 홍현주, 김혜린: 국민보건의식행태조사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pp. 74-86, 1984.
11. 송건용, 박현애, 이순영, 김태정: 의료이용과 건강행위에 관한 종합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42-43, 1993.
12. Nicholas Galli, Herbert H. Lehman: Foundation and Principles of Health Education, John Wileye & Sons, Inc, pp.177-180, 1986.
13. C.E. Tuner, C.M. Sellery and S.L. Smith, School of Health and Health Education, St. Louisi C.V. Mosby Co, p.24, 1966.
14. 김명호, 학교보건사업개선을 위한고찰, 대한의학협회지 3/1, pp.3-7, 1985.
15. 남정자의 2인: 학교보건교육개선에 관한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pp.1-3, 1989.
16. 변종화의 3인: 국민학교 학생들의 보건관리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pp.61-62, 1983.